영어어문교육 *제 19 권* 4 호 2013 년 겨울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과 영어 교재 개발: ‘Heads’와 ‘Tails’ 구문을 중심으로

김 현 진[*]
(청주교육대학교)
장 영 준[**]
(중앙대학교)

Kim, Hyun Jin & Jang, Youngjun. (2013). ‘Heads’ and ‘tails’ in spoken grammar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4), 215-236.

The study attempted to explore grammatical features that frequently occur in spoken English with focus on the constructions called “heads” and “tails.” Heads are noun phrases that occur at the beginning of the clause but are not included in the syntactic structure of the clause, co-referring to the same referents with one of the clause constituents (pronouns). Heads orient the listener toward the topic of the message in the form of content noun phrases. Similarly, tails are noun phrases or [noun phrase + auxiliary] constructions, dislocated at the end of the clause but not included in the syntactic structure of the clause, co-referring to the same referents with one of the clause constituents (pronouns). Tails usually clarify or comment the message by being added in the form of content noun phrases (and auxiliaries) to the end of the clause or just being repeated in the form of pronouns. Literature reviews showed that two spoken English grammar constructions, heads and tails,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poken language such as real-time constraints and interpersonal functions; these constructions are listener-sensitive and speaker-friendly. It is argued that these constructions and other spoken grammar features should be explicitly taught in English classrooms so that the learners can develop their interpersonal grammar abilit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rue meaning.

[spoken grammar/heads/tails/noun phrase prefaces/noun phrase tags, 음성언어 문법/머리말/꼬리말/명사구 머리어/명사구 부가어]

---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이 영어교육현장에서 대세를 이루면서 영어교육은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강조하게 되었다. 의사소통능력은 음성언어를 통한 소통과 문자언어를 통한 소통 둘 다를 포함한다.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 교재는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authentic language)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최근 20~30년간 이루어진 코퍼스의 축적과 연구는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을 교육과정과 교재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 중요한 자료 제공원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코퍼스가 제공하는 자료의 혜택은 문자언어의 경우보다 음성언어의 경우에 더 두드러진다. 코퍼스 발달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 자료가 주로 문자언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와 코퍼스의 발달 이후에는 문자언어 자료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는 축적하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음성언어의 자료 축적이 수월해지고 이에 따라 접근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가능해진 코퍼스 연구는 언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그려내면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간의 차이점을 뚜렷이 드러내 보여주었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언어의 세 가지 요소인 발음/철자 체계, 어휘, 구조/문법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지만, 한 언어의 문법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기본 규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차이는 상당히 흥미롭다. 코퍼스 연구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간의 일반적인 차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법 영역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들은 문자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음성언어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 He's amazingly clever, **that dog of theirs**.
(2) **Your sister**, is she coming too?

(Carter & McCarthy, 2006, p. 194)

예문(1)에서 *that dog of theirs*는 절의 주어인 *he*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지만 절의 통사적 구문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절의 일부인 *he*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지만 절 구조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의 일부가 아니다. *That dog of theirs* 없이도 절은 이미 통사적으로 완전하다. 단지 절의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반복하여 지시하는 명사구로서 절의 주어인 *he*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명사구를 꼬리말(tails)이라고 하며, 이 꼬리말 구문은 주로 화자가 자신의 말에 대한 평가성의 의견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예문(2)에서 *your sister*는 절의 주어인 *she*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지만 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절 앞에 사용된 이 명사구는 화자가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절의

주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청자에게 화제를 던지며 청자가 화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명사구를 머리말(heads)이라 한다. 이 두 가지 구문은 화자가 청자를 고려하는 대인적(interpersonal) 요인을 반영하는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형식적 언어사용 맥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문자언어에서는 비교적 잘 사용되지 않는다. 머리말 및 꼬리말 구문과 같은 음성언어 문법적 특징은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음성언어 문법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머리말과 꼬리말 두 가지 구문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두 구문을 예시로 하여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음성언어 문법

1. 음성언어의 특징과 음성언어 문법

음성언어 문법이란, 문자언어 문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말을 할 때 적용되는 문법을 말한다. 기존의 문법이 주로 문자언어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을 규정하고 기술한 것이라면, 음성언어 문법은 코퍼스의 발달과 함께 확연히 드러난 음성언어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에 대한 것이다. 한 언어의 음성언어 문법과 문자언어 문법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거나 서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언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음성언어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McCarthy & Carter, 2001). 음성언어만의 특징은 토론이나 연설과 같은 형식적인 상황보다는 비형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더 두드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Cullen과 Kuo(2007)는 음성언어 문법을 대화문법(conversational grammar)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음성언어 문법은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음성 담화에 나타나는 체계적인 문법 현상에 대한 것이다. 말과 글은 동일한 기저(underlying) 문법 시스템에서 출발하지만 말과 글이 사용되는 환경에 부응하도록 각각의 시스템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되므로(Cullen & Kuo, 2007) 음성언어 문법은 문자언어 문법에서 나타나지 않는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말은 즉흥적이고 비계획적이어서 하나의 발화를 조금씩 단계별로 조립(“step-by-step assembly of a spoken utterance”, Brazil, 1995, p. 17)해나가는 실시간 처리과정을 밟는다. 또한, 말은 면대면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맥락을 공유하면서 소통하므로 대인간 요인들을 더 의식하게 된다(Leech, 2000). 대인간 요인들은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 말을 할 때 어떤 문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 대인간 요인들은 대화 참여자들 간의 유대

를 확고하게 해주고 확장시킨다(Eggins & Slade, 1997). 뿐만 아니라 말은 상당히 상호작용적이어서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맥락에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Brown, 1989). 이와 같은 음성언어의 특징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음성언어 담화와 문법의 특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음성언어의 특징들이 빚어내는 문법적 특징들을 Cullen과 Kuo(2007)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여러 통사적 범주에 걸쳐 정보를 조금씩 나누어 할당하는 정보의 단계화(staging of information)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절에서 논의할 머리말 구문이 그러하다. 머리말 구문은 주절에서 언급할 주제를 절을 시작하기 전에 언급함으로써 통사적 범주(절) 밖에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다. 음성언어가 문자언어보다 어휘의 밀도가 낮은 것도 정보의 단계화 특징에 기인한다. 말을 할 때는 통사적 범주마다 정보를 조금씩 나누어 할당하기 때문에 어휘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Halliday, 1985). 둘째, 통사적 정교화 혹은 복잡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평균 발화의 길이, 특히 명사구의 길이가 매우 짧아지는 현상과 접속사 *and*, *cos, so*로 연결되는 절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낳게 된다(Carter, 2004; Leech, 2000). 셋째, 절의 구성요소가 나타나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음 예문 (3~4)에서 보듯이 부사와 부가의문문의 위치가 자유롭다.

(3) I was worried I was going to lose it and I did **almost**.
(4) Spanish is more widely used **isn't it** outside of Europe.

(Carter, 2004, p.31)

마지막으로,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애매하게 하거나 완화시키는 모호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명사구, 동사구, 부사, 형용사 등의 앞에서 *sort of*나 *kind of*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모호한 표현들은 화자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덜 정확하고 덜 단정적으로 만들어서 추후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효과를 주게 된다(Carter, 2004).

이러한 음성언어의 특징들은 영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여러 언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들이어서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문법적 자질들로 구현되는지는 필연적으로 언어마다 다르므로 외국어 학습자들은 해당 외국어의 특정 구문에서 그러한 자질들이 어떻게 부호화되는가를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음성언어 문법을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음성언어 문법 기술의 기준

음성언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법을 학습자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을 제대로 기술해야 한다. 음성언어 문법의 기술은 음성언어 코퍼스 자료의 축적으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가 지원하고 노팅엄 대학이 개발한 CANCODE(Cambridge and Nottingham Corpus of Discourse in English)는 많은 연구자들(Carter, Hughes, & McCarthy, 1998; Carter & McCarthy, 1995, 1997, 2006; McCarthy, 1998; McCarthy & Carter, 1995, 2001)이 음성언어의 특징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이 코퍼스 자료는 다양한 상황—개인 가정, 상점, 사무실, 공공 장소, 비형식적인 상황에서의 교육 기관—의 대화 녹음을 전사한 5백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McCarthy와 Carter(2001)는 CANCODE 자료로부터 음성언어의 특징을 추출해내고 이를 음성언어 문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토대로 음성언어 문법 개발의 몇 가지 주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언어 문법을 기술하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의 문자 언어 문법에서는 주절, 종속절, 문장 등이 문법을 기술하는 기본 단위이다. 이 단위들이 음성언어 문법을 기술하는데 여전히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McCarthy와 Carter(2001)가 언급하듯이 대화상에서는 구나 완성되지 않은 절로 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절이 없는 종속절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존의 주절, 종속절, 문장 등의 개념이 음성언어 문법을 기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음성언어에서는 대화 상대자들이 연이어 발화하며 하나의 문장을 공동으로 완성하기도 하는 특징(joint-production grammatical units)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장하듯이 음성언어 문법은 실제 대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으로 내포된 문법(socially-embedded grammar)을 지향해야 하며 그러한 문법에 적합한 단위로 기술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문자언어 문법이 언어 구조를 규범적인 규칙으로 설명하는 성격을 가진다면 음성언어 문법은 어떤 성격으로 정의되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McCarthy와 Carter(2001)는 명사구 구조에 대한 규칙을 예로 들면서, 음성언어 문법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what *can* be said")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한다'("what *is* routinely said")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머리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순서에 대해 대부분의 문법 교재에서는 명사구 구조에 대한 규칙을 복잡하게 제시하지만 코퍼스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명사구 구조, 예를 들면 [determiner + one adjective + noun] 구조가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음성언어 문법은 언어 구조에 대한 규범적 언급을 하는 결정론적 문법(deterministic grammar)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형태에

관한 개연론적 문법(probabilistic grammar)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연론적 문법에서는 창의적 사용의 자유와 변이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즉 실제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화자의 언어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므로 구조적으로 가능한 복잡한 구조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좀더 단순한 구조나 구조적 변이가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음성언어 문법은 대인간 의미를 반영하는 문법적 특징을 잘 기술해야 한다. 문자언어에서는 전형적으로 일반적이며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글을 쓰거나 특정 대상을 향해 쓰더라도 시공간적 거리를 두게 되는 반면에, 음성언어에서는 대개의 경우 대화 상대자가 서로 마주한 동시적 공간에서 말을 하므로 대인적 요인이 중요하다. 영어에서 시제와 상과 같은 동사구의 형태론적 구조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시제와 상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태도를 달리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막연한 대상을 상대로 하여 과거 시점에 발생한 사건을 글로 표현할 때는 단순 과거 형태를 사용한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대화상에서 표현할 때는 현재 완료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대화 상대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대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대화 상대자와의 거리를 두는 단순 과거 형태(detached *passé simple*) 대신에 상대자를 연루시키는 현재 완료 형태('involving' present perfect)를 선택한다는 것이다(McCarthy & Carter, 2001). 이와 같이 음성언어에서는 단순히 언어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적 요인에 따라 문법 사항의 선택이 달라지며, 음성언어 문법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의 영어 문법은 어순, 즉 절 내의 구성성분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영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음성언어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음성언어에서는 이들의 위치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음성언어 자료에 나타나는 이러한 위치상의 자유로움을 비문법적인 용법이나 변칙적 사용으로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이러한 자유로움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특정 집단에게만 해당된다면 비문법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여러 인구학적 집단에 걸쳐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전반적인 음성언어 현상이므로 음성언어 문법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절의 구성요소 순서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음성언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관련된다. 음성언어 상황에서는 화자가 리허설 없이 실시간 제약을 받으며 말해야 하고 동시에 청자가 자신의 발화를 잘 따라오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절 내의 구성성분이 고정된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McCarthy와 Carter(2001)는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절의 구성성분을 좌측전위(left-dislocated) 또는 전치(pre-posed)하는 현상과 우측전위(right-dislocated) 또는 후치(post-posed)하는 현상을

들고 있다. 좌측전위 또는 전치되는 구성성분은 명사구이며, 이 명사구는 절 구조의 왼쪽 밖 즉 절의 맨 앞으로 내보내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화자가 새로운 화제로서 특정 사람이나 대상을 미리 언급함으로써 절의 내용을 청자가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다. 즉 명사구가 좌측전위되는 구문은 청자에게 들을 내용에 대한 적절한 틀 내지는 스키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우측전위 또는 후치되는 구성성분도 주로 명사구이며, 이 명사구는 절 구조의 오른쪽 밖 즉 절의 맨 끝으로 내보내어진다. 이 구조는 화자가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절의 내용에 대한 강한 평가성의 의견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된다. 좌측전위된 명사구가 바로 '머리말'이며 우측전위된 명사구가 '꼬리말'이다. 머리말과 꼬리말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성언어의 문법적 특징은 문장을 넘어 더 긴 길이의 텍스트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음성언어 문법을 기술하려면 문장 단위를 넘어 담화 문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문자언어 상황 또는 형식적 음성언어 상황의 뉴스 텍스트에서 미래 사건과 그 세부 사항을 연이어 언급할 때 *be to*-plus-*will* 패턴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비형식적 음성언어 상황에서는 *going to*-plus-*will* 패턴을 보인다(McCarthy & Carter, 2001). 이와 같은 특징의 기술은 문장 단위 분석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담화 맥락에서 여러 문장에 걸쳐 사용되는 문법적 특징들을 파악해야 가능한 작업인 것이다.

III. 머리말과 꼬리말의 형태 및 기능 분석

서론과 2장에서 설명했듯이, 머리말 구문과 꼬리말 구문은 음성언어 문법의 대표적인 현상 중의 하나이다. 3장에서는 이 두 가지 구문의 형태 및 기능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1. 머리말의 형태 및 기능 분석

머리말은 같은 문장에 있는 절의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절 앞에서 미리 언급하는 명사구이다. 즉 머리말은 절의 대명사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하다. 다음은 Nottingham 코퍼스에 나타나는 머리말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머리말에 해당하고 밑줄 친 부분은 머리말과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한 대명사이다.

(5) **This little shop—**<u>it</u>'s lovely. (Biber *et al.*, 1999, p. 1074)
(6) **The women**, <u>they</u> all shouted. (Carter *et al*., 1998, p. 82)

(7) **That house in Brentford Street**, is that where she lives? (Carter, 1997, p. 58)

예문(5~7)에서 *this little shop, the woman, that house in Brentford Street*은 뒤따르는 명제 절의 주어가 되는 대명사 *it, they, that*과 각각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절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절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명사구로 언급한 것이다. 2장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음성언어는 절의 구성요소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머리말은 이러한 특징을 아주 잘 반영하는 문법 구문이다. 머리말은 뒤따르는 절의 구성성분인 대명사 주어에 대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머리말은 통사적으로 완벽한 절의 밖에다 내용 정보가 들어있는 명사구를 놓는 아주 독특한 형식의 구문이다.

머리말 구문은 절의 앞에 놓이는 명사구라는 점에서 명사구 머리어(noun phrase preface)(Biber *et al*., 1999)라고 불리기도 하며, 절 구조 밖으로 이탈하여 왼쪽 끝에 놓인다는 점에서 좌측전위(left-dislocations)(Leech, 2000; 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 1985)라고도 불린다. 또는 'headers'라고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Carter와 McCarthy(1997)에 따라 머리말(heads)이라고 부른다. 명사구 머리어 대신에 머리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구문과 구조상 대칭을 이루며 절 밖 오른쪽 끝에 놓이는 꼬리말(tails)이 반드시 명사구 형식을 취하지 않으므로 명사구 꼬리말(noun phrase tags)이라는 용어로는 꼬리말 구문을 모두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칭을 이루는 두 구문의 용어를 'heads'와 'tails'라고 통일하여 칭하는 것이 두 구문의 통사 및 의미적 유사성을 잘 포착해줄 수 있다.

이러한 머리말 구문은 예문(8)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의 문장에서도 사용된다.

(8) **Paul**, in this job that he's got now, when he goes into the office he's never quite sure where he's going to be sent. (McCarthy & Carter, 2001, p. 61)

머리말 구문은 예문(9)처럼 머리말을 포함하는 명사구와 절의 주어가 복잡한 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9) **This friend of ours**, **her daughter**, **Carol**, she bought one. (Carter *et al*., 1998, p.82)

다음 두 개의 예문은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10) **A friend of mine**, his uncle had the taxi firm when we had the wedding. (McCarthy & Carter, 2001, p. 61)

(11) **Robert**, **this friend of mine I work with**, his son was involved in a car crash just like that. (Carter *et al*., 1998, p. 83)

예문(10)에서 *A friend of mine*은 같은 문장에서 뒤따르는 절의 주어인 명사구 *his uncle*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 명사구의 일부가 되는 대명사 *his*가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예문(11)에서 두 개의 명사구 *Robert*와 *this friend of mine I work with*는 뒤따르는 절의 주어인 명사구 *his son*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 명사구의 일부인 대명사 *his*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 바로 이 점에서 머리말 구문과 동격 구문이 구별된다.

위의 예문(10~11)에서 명사구 머리말은, 주어 위치에 놓인 명사구 전체가 지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명사구 일부를 구성하는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공동으로 지시한다. 반면 동격 구문의 경우에는 주어 옆에 위치한 명사구가 주어 위치에 놓인 명사구 전체와 동일한 대상을 공동으로 지시하게 된다. 만일 예문(10)이 동격 구문이라면 *a friend of mine*과 *his uncle*이 동일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문(10)은 머리말 구문으로서 *a friend of mine*과 *his uncle*은 동일 인물이 아니며 *a friend of mine*과 *his*가 동일 인물이다.

지금까지의 예문들이 머리말 명사구가 절의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를 보여주었다면, (12)와 (13)는 각각 절의 목적어 명사구와 동일한 대상을 공동으로 지시하는 경우를 보여주며 (14)는 보어 명사구의 일부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12) **His cousin in Beccles**, **her boyfriend**, his parents bought him a Ford Escort for his birthday. (McCarthy & Carter, 2001, p. 61)
(13) You know, **the vase**, did you see it? (Biber *et al*., 1999, p. 1074)
(14) **The last girl**, I'm her father. (영화 *Taken* 대사 중에서)

그렇다면 대화상에서 화자는 머리말 구문을 어떤 목적이나 의도로 사용하는가? 머리말 구문은 절의 명사구 요소를 절 구조의 앞으로 끄집어 내어 미리 언급하는 장치로서, 화자가 언급하는 화제의 방향으로 청자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머리말 예문들은 대명사로 표시된 절 명제의 주어, 목적어, 또는 주어나 보어의 일부가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청자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화제를 미리 던져서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들을 때 그 화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능(orienting and focusing function)을 한다(Carter *et al*., 1998). 달리 말하면, 미리 언급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화제를 예상하게 하는 선행 명사구(fronted anticipatory phrase)(Carter, 1997)인 셈이다. 이와 같이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와 관련이 있는,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머리말 명사구

의 형태로 절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공함으로써 한 문장 속에서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절의 대명사 주어나 대명사 목적어가 지시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지식의 틀을 청자가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머리말의 효과는 청자가 화자의 말을 애매함 없이 명확하게 이해하여 화자의 질문이나 진술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머리말 구문은 청자에 민감한(listener-sensitive) 문법 장치(Carter *et al.,* 1998, p. 71)이다.

절이 이미 통사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머리말이 되는 명사구는 뒤따르는 절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문(5)나 예문(13)에서 보듯이, 절의 주어나 목적어 대명사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머리말은, 절이 이미 주어나 목적어를 포함하는 완벽한 통사 구조를 이루므로 절의 구성성분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머리말 명사구는 절 구조 내의 대명사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지만 그 대명사와의 통사적 관계가 불확실하다. 문자언어 기반의 전통 문법 기준으로는 머리말이 변칙 구문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전통 문법은 머리말 구문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면대면 상황에서는 명제적 의미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 외에 대화 상대자들이 의미를 서로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인간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바로 머리말과 같은 구문이 대화자들의 고려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문법 장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머리말 구문의 형태 및 기능에 대한 조명은, 영어 학습자들이 보다 실제 언어에 가까운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음성언어 문법을 지도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성언어 문법 사항을 제대로 기술하게 해줄 것이다.

2. 꼬리말의 형태 및 기능 분석

머리말 구문과 문장 구조적인 면에서 대칭을 이루는 것이 꼬리말 구문이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꼬리말 구문은 절의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구로서 절의 끝에 위치하며 (절이 이미 통사적으로 완전하므로) 절의 통사적 범위 밖에 있다.

(15) It's too hot for me, **Singapore**. (Carter *et al.,* 1998, pp. 70-71)
(16) It was a really big explosion **that one**. (Carter, 1997, p. 57)
(17) I reckon they're lovely, I really do, **whippets**. (Biber *et al*., 1999, p. 1080)

예문(15~16)에서 꼬리말인 *Singapore, that book*은 각각 절의 주어인 *it*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구들이다. 마찬가지로 예문(17)의 꼬리말 *whippets*는 절의 주어인 *they*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하다.

꼬리말 구문은 절의 주어 외에 다른 구성성분과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기도 한다. 바로 아래 예문(18)은 절의 목적어 대명사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하다.

(18) I wouldn't trust him for a moment, **your brother-in-law**. (Quirk *et al*., 1985, p. 1417)

예문(15~18)의 끝에 놓인 각각의 명사구들은 절이 이미 통사적으로 완전히 형성된 뒤에 절의 끝에 꼬리처럼 덧붙여지므로 꼬리말이라고 부른다(Aijmer, 1989; Carter *et al*., 1998; Cater & McCarthy, 1995). 꼬리말은 절의 뒤에 추가로 놓이는 명사구라는 점에서 명사구 부가어(noun phrase tags)라고도 하며(Biber *et al*., 1999), 절 구조 밖으로 이탈하여 절의 오른쪽 뒤에 놓인다는 점에서 우측전위(right-dislocations)라고도 한다(Leech, 2000; Quirk *et al.,* 1985).

지금까지의 꼬리말 예문들은, 명사구를 절 밖으로 위치시키는 방향이 머리말과 반대라는 점만 제외하면 형태상 머리말과 유사하다. 꼬리말도 머리말과 마찬가지로 절의 주어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절 밖에 덧붙임으로써 청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차이점은 머리말은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언급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화제에 방향을 맞추게 하거나 화제를 예상하게 한다면, 꼬리말은 구체적인 정보를 나중에 언급함으로써 정보를 추가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꼬리말은 부가적 명사구 꼬리말(amplificatory noun phrase tags)(Carter, 1997)이나 부가적 꼬리말(amplificatory tags)(Quirk *et al*., 1985)이라고 불린다.

지금까지의 예문들과 달리 꼬리말은 머리말과 다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3장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머리말 구문이 명사구 형태를 취하는 것과는 다르게, 꼬리말은 반드시 명사구 형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꼬리말은 다음과 같이 주어 명사구와 동사구를 동시에 포함하는 확장된 형태를 갖기도 한다.

(19) She's got a nice personality **Jenny has**. (Carter *et al*., 1998, p. 70)
(20) That was a lark, **that was**! (Quirk *et al*., 1985, p. 1417)
(21) He's a real problem **is Jeff**. (Carter *et al*., 1998, p. 70)

예문(19)에서 보듯이, 꼬리말에서 *Jenny*는 절의 주어 *she*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며 절의 동사인 *has*까지 포함하여 확장된 형태(*Jenny has*)를 취하고 있다. 예문(20)도 마찬가지이다. 예문(21)은 꼬리말 부분에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도치되어 있다. 어느 경우이건 이렇게 주어와 동사구를 반복함으로써 주어 명사구만으로 이루어진 꼬리말보다 감정이입의 정도를 높이기도 한다.

다음 예문(22~23)은 또 다른 형태를 보인다.

(22) I'm going to have burger and chips **I am**.

(23) It can make you feel very week **it can flu**.

(Carter *et al*., 1998, pp. 70-71)

대개의 꼬리말은 명사구를 통해 절의 대명사 주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는데, 예문(22)는 절의 주어인 대명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머리말과 꼬리말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대개의 꼬리말 구문은, 머리말 명사구가 절의 구성성분인 대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절 밖에서 미리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절 밖에서 나중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예문(22)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단순히 대명사를 반복하고 있다. 절의 주어를 단순히 반복함으로써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문(23)은 절의 주어인 대명사를 반복한다는 점에서는 예문(22)와 동일하지만,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의미적으로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꼬리말이 머리말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다음 예문(24)에서도 나타난다. 예문에서 보듯이 절의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일반 명사구인 경우인데 절 뒤에 꼬리말 대명사가 추가되었다. 일반적인 꼬리말 구문이 주어가 대명사이고 꼬리말이 일반 명사구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반대인 것이다.

(24) Jenny's a good swimmer **she is**. (Carter *et al*., 1998, p. 72)

머리말 구문과 대개의 꼬리말 구문이 절의 구성성분인 대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머리말 또는 꼬리말 명사구가 제공하는 것과는 반대로, 예문(24)에서는 이미 절의 대명사에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음에도 절 뒤에 동일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를 추가한 것이다. 이 경우 꼬리말 명사구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이 때의 꼬리말은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문(22~24)는 구체적인 정보를 내용 명사구 형태를 통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를 반복하는 형태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꼬리말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꼬리말은 강화 꼬리말(reinforcement tags)(Swan, 1995)이라고도 불린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꼬리말 구문은 머리말 구문보다 복잡한 형태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꼬리말 구문은 형태상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우선, 절의 주어와 꼬리말의 명사구가 둘 다 대명사가 아니라 내용 명사구라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위의 예문(24)와 아래 예문(25)를 비교해보자. 두 문장은 모두 주절의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명사구이다. 이 경우 예문(24)처럼 꼬리말 부분에 대명사가 쓰일 수는 있지만, 예문(25)처럼 그 명사구를 그대로 반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25)?Jenny's a good swimmer **Jenny**. (Carter *et al.,* 1998, p. 72)

그리고 꼬리말 구문이 명사구와 동사구의 결합으로 확장된 형태를 취할 때는 다음 예문(26~27)에서 보듯이 꼬리말에 축약형이 사용되지 않는다.

(26) *Jenny's a good swimmer **she's**.
(27) *She's a good swimmer, **Jenny's**.

(Carter *et al*., 1998, p. 72)

지금까지의 예문에서 보듯이 꼬리말은 메시지를 전달한 뒤 절 끝에 꼬리처럼 붙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절의 대명사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청자의 이해를 도와주기도 하고(Biber *et al*., 1999), 절의 대명사 주어나 목적어 등을 단순히 그대로 반복하여 절의 메시지 내용을 강조하기도 하며(Biber *et al.*, 1999; Swan, 1995), 메시지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Aijmer, 1989; Carter *et al.,* 1998). 꼬리말은 (꼬리말인 명사구가 절의 대명사 구성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건 아니건) 절 바로 뒤에서 방금 언급한 대상이나 중요한 내용을 즉시 일깨우는 역할(Carter *et al*., 1998)을 하는 것으로서, 화자가 대화에서 언급한 화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된다.

머리말과 마찬가지로 꼬리말도 미리 계획하지 않은 비형식적인 담화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꼬리말은 머리말과는 달리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건 아니건) 본질적으로 반복의 기능을 수행한다. 미리 계획한 담화에서는 담화 구조를 사전에 응집력(cohesion) 있게 조직할 수 있는 반면, 비형식적인 대화에서는 꼬리말이라는 반복을 통해 미리 계획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담화의 응집력을 뒤늦게 확보하는 것이다.

3. 머리말과 꼬리말의 유사점과 차이점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적 구문인 머리말과 꼬리말은 실시간 제약을 받는 대화상에서 사용되는 대인적 문법에 속하는 요소이다. 둘 다 대화 상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문법 장치이다. 3장 1절과 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머리말과 꼬리말은 형태와 기능 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 절에서는 그 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하기로 한다.

우선, 머리말은 실시간으로 언어를 처리해야 하는 청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화제를 미리 던져서 화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머리말은 청자에 민감한 장치이다. 꼬리말은 화자가 청자와 서로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로 발화를 시작하며 청자와의 친밀감을

표현하다가 공유된 정보를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메시지의 끝에 구체적인 정보를 밝힌다. 또한 꼬리말은 화자가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며 그러한 감정과 태도에 청자를 연루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발로이다. 청자가 명확해진 메시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꼬리말 역시 청자에 민감한 문법적 장치이다.

다음으로, 머리말은 말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화자 친화적(speaker-friendly)이다. 상당히 길이가 길거나 복잡한 명사구 머리어로 구성된 머리말 구문은 화자에게 언어를 계획할 시간을 더 허락해준다. 명사구 머리말이 있는 구문(28)과 없는 구문(29)를 비교해보면 그 특징적 차이가 잘 드러난다.

(28) **Marks and Sparks bags**, can you see them all? (머리말 + 절 명제; Biber *et al.*, 1999, p. 1074)
(29) Can you see all those Marks and Sparks bags? (절 명제)

머리말은 메시지의 관념적 내용(Halliday, 1985)을 전달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뒤따라 나올지 청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메시지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선행 조직자(advance organizer)와 같은 기능을 한다. 꼬리말은 메시지의 관념적 내용을 전달한 뒤에 메시지에 대해 더 개인적이고 평가적인 입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더 직접적으로 대인적 기능을 수행한다. 머리말도 메시지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지만 머리말의 주요 기능은 메시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머리말은 메시지 앞에서 지시 대상을 미리 밝힘으로써 청자에게 메시지의 방향을 잡아주는 전경(foreground) 역할을 한다. 꼬리말은 화자가 청자와 배경(background)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로 화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밀접한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며 메시지를 명확하게 부연하거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Ⅳ.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과 영어 교재 개발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머리말과 꼬리말 구문은 대화상에서 대인적 요소를 반영하는 대인적 문법 구문이다. 대인적 특징을 반영하는 음성언어 문법은 비단 머리말과 꼬리말 구문만이 아니다. Cullen과 Kuo(2007)는 EFL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대화상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음성언어 문법 자질들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범주A는 생산적인 문법 구문이다. 이 범주의 구문을 사용하려면 해당 발화를 산출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법적 지식이 요구된다. 앞 장에서 논의한 머리말과 꼬리말 구문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이

구문을 부호화하는 과정에는 명사구 형태의 머리말과 뒤따르는 대명사 간의 문법적 특징(수와 성)의 일치가 필요하다. 범주A의 구문들은 전반적인 음성언어 자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반면 문자언어 자료에서는 훨씬 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문들을 Quirk 등(1985)과 같은 표준 문법학자들이 회화 스타일이라고 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머리말과 꼬리말 구문 이외에 음성언어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문은 과거 진행(past progressive)의 사용과 생략(ellipsis) 현상이다.

영어에서는 대화상에서 전달 화법(reported speech)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특히 say나 tell과 같은 동사로 표현하는 경우, 다음 예에서 보듯이 화자들은 좀 더 표준적인 단순과거형을 사용하는 대신에 과거진행형을 사용한다.

(30) but Yvonne **was saying** on my wages I wouldn't get a mortgage.
(31) He **was telling** me that they'd died of the frost or something.
(Biber *et al*., 1998, p. 1120)

전달화법에서 사용되는 과거진행형 구문에 대해 Biber 등(1998)은 화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증거의 기능(evidential function)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McCarthy와 Carter(2002)는 화자가 덜 단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전달된 진술이 덜 확정적으로 들리게 하는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인적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언어 및 상황 맥락으로부터 복구 가능한 요소를 생략하는 현상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서 모두 발견되지만, 생략구문의 사용과 분포는 음성언어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예문 (32)와 (33)처럼 즉각적인 상황으로부터 복구 가능한 요소를 생략하는 상황적 생략은 비형식성과 맥락 공유라는 대화상의 요인들이 결합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Leech, 2000) 문자언어보다는 음성언어의 특징으로 간주된다.

(32) Saw Susan and her boyfriend in Alder weeks ago. (I의 생략)
(33) Too old to change, aren't we? (We're의 생략) (Biber *et al*., 1998, p. 158)

표면적으로 볼 때, 생략은 문법적으로 부호화하는 과정을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청자가 생략구문을 이해하려면 생략된 부분을 반드시 복구하여야 한다. 예문(33)에서 보듯이 부가 의문문을 붙여서 발화를 하려면 화자가 반드시 생략한 부분에 대한 구문적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생략은 머리말이나 꼬리말과 같이 문법적 구문을 생성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범주A에 속한다.

범주B는 고정된 어휘문법적(lexicogrammatical) 단위로서, 형태론적 변화를 겪지 않으며 발화내의 적절한 위치에 삽입된다. *really*나 *actually*와 같이 단일

어휘로 되어있거나 *sort of*, *kind of*처럼 짧은 구로 이루어지며, 발화의 특정 구성성분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범주B는 주변의 문법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삽입되어야 할 위치는 통사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형태가 변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단위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범주A보다 학습과 사용이 수월하다. 불변화사(particles), 막연함의 부가어(vagueness tags), 완화 표현(modifying expressions), 담화 표시어(discourse markers)가 여기에 속한다. 우선 불변화사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드는 장치이며 화자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잠시 생각하는 중임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대화상의 빈틈을 메우는 충전재(filler)이다. 이와 같이 불변화사는 자신의 발화를 실시간 처리과정에 맞추어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막연함의 부가어는 *and things like that*, *and stuff like that*처럼 앞에서 언급한 항목들의 특징에 근거하여 청자가 일반적인 한 세트의 항목들을 식별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완화 표현은 형용사구나 명사구와 함께 쓰이는 *a bit, a little bit* 등이 해당되며, 화자의 태도를 양상적으로 또는 애매하게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특히 화용론적으로 정중함을 표현한다. 대화상의 상호작용적인 본질과 그 결과로 연관된 감정, 태도, 정중함을 반영하는 것이다(Biber *et al*., 1999; Leech, 2000). 마지막으로 담화 표시어는 *you know*, *I mean*처럼 구문의 다른 요소들과 통사적으로 아무런 관계없이 삽입되는 독립적 표현이다(Sujung Min, 2011). 절 문법에 느슨하게 통합되는 일종의 관례화된 불변화사로서 대화의 상호작용적 성격을 반영한다(Leech, 2000).

범주C에 속하는 문법적 특징들은 문법의 규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규범 문법의 수용가능성 문제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fewer 대신 less가 가산명사와 함께 쓰이거나 가정법 주절에서 were대신 was가 쓰이는 경우이다. 규범 문법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문법적으로 부정확한 항목이지만 비형식적 대화 맥락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항목들이다. 각 항목들은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형태가 존재한다. 예문(34)의 *less*에 상응하는 형태는 *fewer*이고 예문(35)의 *more fresh*에 상응하는 형태는 *fresher*이다.

(34) You would have less cars on the road and less accidents. (MacAndrew, 1991, p.56)
(35) It’s definitely cheaper and more fresh. (MacAndrew, 1991, p.20)

범주C의 특징들은 범주A나 범주B처럼 대화상에서 빈번히 사용되지만 이들과 달리 언어순수주의자들에게는 비문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Carter와 McCarthy(2006)는 이러한 특징들을 비형식적 대화에서 사용되는 용법의 예시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의 어휘처럼 사용되는 범주B는 논외로 하고 범주A와 범주C를 비교하면 이러하다. 범주C가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은 변화 과정 중에 있는 문법

사항이라면, 범주A는 음성언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특히 *less*의 경우 불가산명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비형식적인 음성언어 상황에서 점차 복수 가산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을 볼 때, 범주C는 언어 변화와 관련이 있다(Cullen & Kuo, 2007). Cullen과 Kuo는 범주C는 해당 문법적 자질에 대한 확실한 형식적인 대안 형태가 있으므로 의미상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스타일 선호도 문제인 반면 범주A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범주C에 속하는 특징들이 형식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대안 형태 즉 표준 문법에 맞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범주A에 속하는 특징들도 형식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대응 구문을 갖는다. 예를 들어 대상(청자)을 포함시키는 과거진행 시제에 상응하는 구문은 대상(독자)과 거리를 두는 과거시제 구문이다. 머리말이나 꼬리말, 그리고 생략 구문도 대응하는 형식적 구문이 존재한다. 결국은 범주A나 범주C에 속하는 문법 특징들이 모두 스타일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이 범주에 속하는 문법적 특징들은 영어에서 모두 허용되는 특징들이며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이 영어에서 통용되는 문법 사항들로 학습해야 할 내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들을 어느 범위까지 학습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Cullen과 Kuo(2007)의 연구에 따르면, 대개의 EFL 교재는 음성언어의 문법적 특징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범주B는 비교적 반영이 잘 되고 있는 반면 범주A나 범주C는 상대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적고 고급 수준의 대화문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표준문법에서 비문법적인 구문으로 간주되는 범주C는 고급 수준에서도 드물게 반영된다. 범주B가 상대적으로 잘 반영되는 것은 마치 하나의 어휘 단위처럼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형태상의 변화 없이 그대로 문장에 삽입하면 되기 때문에 학습과 사용이 수월해서일 것이다. 반면 범주A는 해당 구문에 대한 통사 지식을 기반으로 생성하거나 해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과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 최근에 발행되는 문법책에서조차도 범주A에 속하는 특징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범주C의 반영은 다른 범주에 비해 아직은 잘못된 형태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예를 들어, 김미란, 2012; 박주희, 2013; 신동일, 김민호, 2012; 이진경, 2009)에서도 세 범주의 반영과 분포는 비슷한 패턴으로 발견된다. 패턴은 유사하나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되는 EFL교재보다도 반영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범주C는 찾아보기 힘들고, 범주A도 (꼬리말로 보기 어려운 구문이나 동격 구문을 꼬리말 구문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 연구 분석상의 오류를 제외하면 반영되는 비율은 더 낮아진다. 특히 범주C의 경우에는 교과서 검정 및 심의 과정에서 문법적 오류로 간주되어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 교재에 나타난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과 학습자들은 실제 원어민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실제 대화상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을 학습해야 한다는 인식과 요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와 같은 대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지속적인 영어교육의 목표로 지향한다면, 음성언어 문법을 어느 범위와 정도로 반영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머리말과 꼬리말의 경우 어느 수준까지 학습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머리말과 꼬리말이 음성언어 문법에서 정상적인 구문임을 인정한다면, 학습자는 대화상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수단 중의 하나로 학습해야 하고, 영어 교재 개발에 이러한 문법적 특징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머리말과 꼬리말 구문의 경우 교재에 반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머리말과 꼬리말 구문은 다른 음성언어 문법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말과 꼬리말이 나타나는 맥락 전체를 고려하여 선택되는 구문이므로, 문장 수준이 아니라 담화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영문법 교재의 경우 문장 수준에서 해당 예문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길이의 담화로 제시하고 연습시킬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둘째, 머리말과 꼬리말은 음성언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이므로 서책형 교재에서 음성언어 문법의 제시와 연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대화 상황에서 머리말과 꼬리말 구문을 사용할 때 억양과 리듬과 같은 음운론적 특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CDrom과 같은 오디오 부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머리말과 꼬리말 구문이 적용된 구문들과 적용되지 않은 구문들을 비교하여 듣고 이들이 음운론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는 화자의 의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모든 학습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재가 얼마나 실제 언어 사용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에 관련된 진실성(authenticity)의 문제가 있다. 머리말과 꼬리말을 학습 내용에 포함시킬 때 실제 음성언어 코퍼스로부터 예문을 끌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음성언어의 특징을 가미한 담화문을 개발할 수도 있다. 실제 대화에서 나타나는 꼬리말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취하기도 하므로 실제 음성언어의 특징을 학습자에게 지도하기 위해 머리말과 꼬리말과 같은 음성언어 문법을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실제 언어를 다룰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CANCODE의 샘플 자료를 살펴보자.

(36) A: And I came over Mistham by the reservoirs, nice it was.
B: Oh, by Mistham, over the top, nice run.
A: Colours are pleasant, aren't they?
B: Yeah.
A: Nice run, that. (Carter *et al*., 1998, p. 81)

(36)은 음성언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략 구문을 보여준다. 우선 끝줄의 *Nice run, that*은 확실히 주어와 동사구가 생략된 꼬리말 구문이다. 첫줄의 *nice it was*는 꼬리말 구문일 수도 있고 보어인 *nice*가 전치된 구문일 수도 있다. 꼬리말 구문이라면 *it was nice it was* 구문에서 *it was*가 생략된 경우이다. 이러한 샘플은 학습자들에게 꼬리말 구문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기에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좀더 명확한 꼬리말의 형태를 보여주려면 다음 (37)과 같이 실제 대화 샘플을 수정할 수 있다.[1]

(37) A: And I came over Mistham by the reservoirs. It was nice it was.
B: Oh, by Mistham, over the top. That's a nice run.
A: Colours are pleasant, aren't they?
B: Yeah.
A: It was a nice run, that.

요약하면, 의사소통능력을 지향하는 영어교육에서는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는 교재가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교재를 통해 실제와 같은 음성언어에 노출되어야 하며 교재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목표어에서 허용되는 구조이며 완벽히 정상적임을 명시적으로 알고 학습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머리말과 꼬리말 구문을 중심으로 음성언어 및 음성언어 문법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들이 대화상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구문들을 어떤 방향으로 영어 교재에 반영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머리말과 꼬리말 구문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꼬리말과 머리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여 말하는가는 음성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분이다. 또한 머리말과 꼬리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능동적인 듣기 능력이며 음성 담화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된다.

[1] Carter 등(1998, p. 82)이 제시한 대화문은 다음과 같다.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로 수정되었다.

A: And I came by the village of Mistham. It was nice it was.
B: Oh you came over the top by Mistham. That's a nice journey.
A: The colours are pleasant at this time of year, aren't they?
B: Yes.
A: It was a nice run that.

머리말 구문과 꼬리말 구문은 대화상에서 대인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문법적 장치이므로 이 구문을 만들고 사용하는 능력은 대인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본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음성언어 코퍼스 연구들은 머리말과 꼬리말이 변칙적이거나 주변적인 구문이 아니라 성별, 지역, 나이, 그 외 다른 사회적, 지리적, 생물학적 요인들과 상관없이 다양한 화자들에 의해 사용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머리말 및 꼬리말 구문과 같은 음성언어 특징들이 영어 학습 교재에 제대로 반영되고 다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고 대화 상대자를 그러한 태도와 감정에 연루시키는데 더 많은 표현의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란. (2012). *고등학교 실용 영어회화 교과서에 나타난 구어문법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주희. (2013). *한국 고등학생들의 구어체 영어에 나타난 담화특징 연구: 구어문법 사용과 오류현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신동일, 김민호. (2012). 영어교재에 나타난 대화문 분석: 학습 생애사 관점에서. *영어영문학연구, 38*(2), 219-248.

이진경. (2009). 고등학교 교과서 읽기 자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영어어문교육, 15*(4), 365-382.

Aijmer, K. (1989). Themes and tails: The discourse function of dislocated elements. *Nordic Journal of Linguistics, 12*(2), 137-154.

Biber, D.,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Essex: Pearson Education.

Brazil, D. (1995). *A grammar of spee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G. (1989). Making sense: The interaction of linguistic expression and contextual information. *Applied Linguistics, 10*, 97-108.

Carter, R. (1997). *Investigating English discourse: Language, literacy, literature.* London: Routledge.

Carter, R. (2004). Grammar and spoken English. In. C. Coffin, A. Hewings, & K. O'Halloran (Eds.), *Applying English grammar: Functional and corpus approaches* (pp. 25-39). London: Arnold.

Carter, R., Hughes, R., & McCarthy, M. (1998). Telling tails: Grammar, spoken language and materials development.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67-8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ter, R., & McCarthy, M. (1995). Grammar and the spoken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16*, 141-158.

Carter, R., & McCarthy, M. (1997). *Exploring spoke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ter, R., & McCarthy, M. (2006).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Spoken and written English grammar and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ullen, R., & Kuo, I-chun. (2007). Spoken grammar and ELT course materials: A missing link? *TESOL Quarterly, 41*(2), 361-386.

Eggins, S., & Slade, D. (1997). *Analyzing causal conversation*. London: Continuum.

Halliday, M. A. K.(1985). *Spoken and written language*. Victoria, New South Wales, Australia: Deakin University Press.

Leech, G. (2000). Grammars of spoken English: New outcomes of corpus-oriented research. *Language Learning, 50*, 675-724.

MacAndrew, R. (1991). *English observed: The shock of real English*.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McCarthy, M. (1998). *Spoken language and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Carthy, M., & Carter, R. (1995). Spoken grammar: What is it and how can we teach it? *ELT Journal, 49*, 207-218.

McCarthy, M., & Carter, R. (2001). Ten criteria for a spoken language. In E. Hinkel & S. Fotos, (Eds.) *New perspectives on grammar teaching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pp. 51-75). Mahwah, NJ: Lawrence Erlbaum.

Min, Sujung. (2011). A Corpus-based analysis of EFL learners' use of discourse markers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3), 177-194.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Swan, M. (1995). *Practical English usage*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aken. (2008). http://www.subzin.com/quotes/Taken/The+last+girl,+I'm+her+father.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All

김현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35
청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Tel: (043) 299-0829
Email: 37hjkim@hanmail.net

장영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Tel: (02) 820-5178
Email: yjang@cau.ac.kr

Received in October 15th, 2013
Reviewed in November 26th,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th, 2013